

## 격 려 사

한결같은 자비와 대비심으로 인류의  
평화공존과 국민의 화합, 그리고  
찬란한 전통문화 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 
위해 노력하고 계신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 
동화사 주지스님, 그리고 사부대중  
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**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!**

17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 
한국불교는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 
서 있습니다. 종단 내외에 엄존하는

**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 
잘못된 관행과 낡은 틀을 과감히 벗고,  
‘자성과 쇄신’의 기운을 통해 종단의  
자주성과 교권을 새롭게 확립하는  
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**

**저는 지난 1월 26일 담화문을 통해,  
한국불교가 오늘날 처한 현실은 결국  
우리 스스로의 허물에서 기인함을 깊이  
자각하고,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,  
사회와 함께 하는 불교, 시대정신을  
부여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 
한국불교를 세우자고 말씀드렸습니다.**

**그리고 자성과 쇄신을 통해 60여년 전 ‘봉암사 결사’ 이후 한국불교사에 남을만한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결사의 정신으로 ‘자성과 쇄신결사’를 제안하였습니다.**

**자성과 쇄신결사 제안 이후 종정 예하를 비롯하여 원로대덕스님, 그리고 종단의 많은 스님들이 공감의 뜻을 표하며, 동참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. 또한 사회와 이웃 종교에서도 한국불교의 변화를 위한 몸짓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.**

저의 ‘자성과 쇄신 결사’ 제안은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의식과 평소 종도로서 가지고 있던 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 그리하여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이 사부대중을 소중히 여기고 국민과 사회를 향해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순간이 오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.

**사부대중 여러분!**

**수 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**

**전통문화는 우리의 삶과 숨결이 묻어 있는 뿌리입니다. 또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민족의 정신입니다. 이러한 소중한 역사적, 국가적 자산을 보호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정부는 1700년 동안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우리 불교계를 상대로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은 국가적 책임의 방기이며, 민족정신마저 왜곡하는 행위입니다.**

**현 정권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  
됐던 종교차별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입  
니다. 이제는 더 이상 사례를 일일이  
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. 특히 이곳  
동화사에 개신교인들이 들어와 기도하는  
‘사찰 땅 밟기’ 동영상이 인터넷에  
유포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 
하였습니다. 또한 타 종교인들의  
억지주장과 선동이 지방행정을 압박  
하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부정하며  
갈등을 불러일으킨 곳 또한 동화사가  
위치한 대구지역입니다.**

**신라인들이 중생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염원을 담아 팔공산에 약사여래도량을 건설하였듯이 온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사회갈등 해소하고 민족 전통문화 수호를 위해 기도하고 정진해야 합니다.**

**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!**

**우리는 한국불교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. 출가 수행자로서 청정승가로서 위의를 갖추고 있는지, 깨달음을 구하기 위한 수행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, 중생구제,**

**전법교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오고 있는지, 민족전통 문화의 전승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, 불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.**

**결사는 근본을 바꾸는 의지이자, 노력이며 희생입니다. 정부 여당의 사찰 출입을 막거나 예산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찰하고 쇄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.**

**결사는 누가 만들어주는 지침이  
아닙니다. 종단 지도부가 결의와 결단을  
통해 결사를 선언했다면 현장에서  
실천하는 방안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은  
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. 지금 당장  
눈앞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 
전통문화를 바라보는 이 정부와 여당의  
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.  
또한 한국불교가 국민들에게 정신적  
귀의처로서 신뢰와 존경을 이끌어  
낼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 
합니다.**

**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!**

**우리 삶에 습관처럼 길들여진 부정적 관행과 타성을 자성합시다.**

**한국불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쇄신합시다. 그리고 결사의 정신으로 쉽 없이 정진합시다.**

**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오랜 전통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1700년 역사와 전통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가깝게는 60여 년 전 봉암사 결사와 1994년 종단 개혁을 통해서도 확인 한 바 있습니다.**

**우리는 분명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. 지금 비록 조금은 어렵고 더디더라도 1700년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이 부끄럽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진하고, 발원합시다. 감사합니다.**

**불기2554년 4월 1일**

**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**